

# 한림원소식

Vol. 107

2015년 11월호

권두언 |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한림원의 역할  
 한림원이 만남 사람 | 김도연 POSTECH 총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 덕명한림공학상 등 수상자 선정 '풍성'  
 2015 세계과학한림원서울포럼  
 제 94회~제 96회 한림원탁토론회  
 제 24회 한림국제심포지엄



2015 세계과학한림원서울포럼

#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농업발전방안

제 95회 한림원탁토론회



‘생’ 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농업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제 95회 한림원탁토론회가 지난 11월 4일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과 김주곤 서울대 종자생명과학연구소장,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장 등 3인이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이 토론좌장으로, 김호영 농업사회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안종주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유장렬 DGIST 교수, 조규봉 쿠키뉴스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  
우리 한림원 주최로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생명공학기술-친환경농업의 상생방안과 우리 농업분야의 혁신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은 '생명공학기술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주제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변형작물의 개발연구가 적극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부정적 시각을 줄일 수 있는 정책방향과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한 수용성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 정책의지 ▶친환경농업을 강조하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친환경농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곤 서울대 종자생명과학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 현황 및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우리 농업의 현황 및 문제점, 생명공학기술 활용 농업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소장은 먼저 "최근 들어 생산비 증가와 소비 감소, 시장개방 등에 따라 우리 농업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편이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정보공유 및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항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김주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오과과학기술연구원 종자생명과학연구소 소장,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장

또 "생명공학기술의 개발은 미래 우리 농업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장은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한국 농업 발전모델'을 주제로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정책 현황, 지속가능한 국가 농업 식량 생존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곽 센터장은 "현재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약 24% 수준으로 미래 식량안보를 매우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농업발전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곽 센터장은 ▶가칭 식량안보



▲ 좌로부터 좌장을 맡은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호영 농업사회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안중주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유장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조규봉 쿠팡뉴스(국민일보) 기자



법과 식량영향평가법의 제정 ▶국내농지의 생산성 극대화 방안 마련 ▶적극적인 해외농업 추진 등의 3가지 한국 농업 발전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제발표 후에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호영 농업사회 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농민의 식량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수량증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은 “생명공학기법을 활용할 경우 우리 식량 사정은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많으나 그 혜택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중주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식품은 머지않은 시간에 그 인체 안전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인체 및 생태계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특정기업이 인류의 먹거리를 좌지우지하는 문제 등 다른 여러 문제들이 내포되고 있어 이의 해결

을 위한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장렬 DGIST 교수는 “현재 한국농업의 상황은 산업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했다”며, “근원적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 이외의 산업기반이 허약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가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을 표방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규봉 쿠키뉴스 기사는 “유전자변형 작물은 생명공학도들이 강조하듯 유일하게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GMO 개발과 수입 이전에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 권리 등 기본권리가 보장되어야 소비자들의 GMO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한림원 주최로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생명공학기술-친환경농업의 상생방안과 우리 농업분야의 혁신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